

풀러 신학대학원 (SOT) 한인목회학박사 과정 (KDMin Program) 동문과 재학생 제위께

2016. 2. 25

## 풀러 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박사 과정을 사실상 해체하고 선교대학원 중심의 새 Korean Center 를 출범시킴에 대하여

Fuller 신학교는 2월 4일 한국어 프로그램들의 구조조정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퍼지면서, 여러 재학생들, 동문들, 교계 친지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 여기 그 구조조정 내용과 문제점들을 모든 재학생들과 동문들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오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려 하였으나, 학교 당국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먼저 알리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조금 지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두 주 동안 Fuller 의 총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한인 학생들과 교수들을 만나 그들의 관심사들과 건의들을 듣는 성의를 보여, 혹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재고가 있을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 Fuller 의 지도부로부터 전달된 소식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보다는 자신들의 구조조정안을 견지하면서 겨우 약간의 보완 대책들을 내놓으며 우리 한인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러 Fuller 의 총장과 지도부의 그런 발표문들을 이미 접하셨겠지요. 그리하여 여기 Fuller 의 지도부의 용납할 수 없는 주장들에 대한 답까지 포함하여 이번 구조조정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알립니다.

Fuller 신학교는 지난 2월 4일에 오는 3월 25일 자로 신학대학원 (SOT) 소속 한인목회학박사 (KDMin) 프로그램을 선교대학원 (SIS)의 한국어 프로그램들과 함께 묶어 선교대학원의 안전상 교수 (2015년 7월에 성경과 선교학 조교수겸 선교학부 한국어 과정 academic director 로 풀러 신학교에 부임)를 원장 (Executive Director) 으로 하는 새로운 Korean Center 로 통폐합 할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신학대학원의 목회학박사 과정 (KDMin) 을 위해 일해 온 직원 4 명 중 원장 황진기 교수는 오는 3월 18일자로 보직 해임 (6 월 30일 해직) 통지를 받았고, 프로그램 coordinator 인 이성은 목사와 행정간사인 티파니 서 자매는 3월 18일자로 해직 통지를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인 조의완 박사만 Korean Center 로 이전되어 목회학박사 프로그램 논문지도교수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KDMin 의 원장인 황진기 교수가 해임되는 바람에 부득불 KDMin 의 설립자요 전임 원장인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절차 상, 그리고 내용 상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 1. 절차 상 문제들

### (A) KDMin 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구조조정

지난 몇 해 동안 재정난을 겪어 온 Fuller 신학교는 다수의 주로 하급 직원들을 해고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왔는데, 금년의 구조조정은 우리 KDMin 프로그램을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KDMin 프로그램은 1995 년 6월 설립 때 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적자 재정을 만든 일이 없고 도리어 Fuller 의 신학대학원에 해마다 막대한 재정적 공헌을 해왔고, 선교 대학원의 한국어 프로그램들 역시 선교대학원에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압니다. 파사디나 캠퍼스에는 해마다 적자를 내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전혀 손대지 않고,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들만 그 흑자의 폭이 지난 2-3년 동안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통폐합하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Fuller 의 지도부는 우리 신학대학원 (SOT)의 KDMin 과 선교대학원의 한국어 과정들 (KSIS) 간의 갈등을 이번 통폐합의 또 하나의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원래 주로 Fuller 의 신학대학원과 선교대학원이 오랫동안 물량적 교회성장론과 Shamanism 적 영적전쟁론을 두고 벌여온 논쟁과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오던 Fuller 의 지도부가 7-8 년 전에 선교대학원에서 영적전쟁론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KDMin 과 KSIS 사이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프로그램들의 학사행정에 있어 차이가 있어 갈등이 다 해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KDMin 의 교수들이 KSIS 에 가서 성경과 신학 강좌들도 담당하여주고, 양 학교들의 학생들은 좋은 교제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과정에서 수강하기도 하여 두 한인 목회학 박사 과정들에서 다양성의 장점을 누리게 되었고, 두 과정들의 직원들은 행정의 여러 실제적인 면들에서 협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3 년간 Fuller 의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두 과정을 통합하기로 작정하고 Korean Oversight Council (KOC) 를 만들어 그 통합을 추진토록 하면서부터, 두 과정들은 통합에 대한 서로의 이견으로 대립하게 되어 새로운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 때 Fuller 의 지도부는 KOC 의 의장으로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한국 교회, 사회, 문화에 문외한인 Juan Martinez 교수를 세웠는데 (많은 한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느꼈음), 그것은 두 과정들의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Fuller 의 Labberton 총장은 우리 학생들과 동문들, 그리고 한국의 교계 인사들로부터 갈등하는 두 과정들의 통합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번의 구조조정을 정당화 합니다. 그런데 우리 KDMin 학생들이 그런 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몇몇 동문들과 교계 인사들이 그랬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앞서 설명한 KDMin 과 KSIS 의 관계의 역사와 그동안 변화된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Labberton 총장은 그런 분들의 사건 몇 마디에 휩쓸려 선불리 두 과정의 통합을 밀어부침으로써 도리어 더 큰 갈등을 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2월 4일 우리 KDMin 을 사실상 해체하고 KSIS에 편입시키는 식의 현명하지 못한 통폐합 안이 발표된 이후 이곳 Pasadena 에서는 KDMin 뿐 아니라 신

학대학원 (SOT) 의 다른 한인 학생들까지 크게 반발하여 두 과정들 사이의 갈등이 훨씬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행했다는 통합이 도리어 더 큰 갈등을 낳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구태어 두 과정들의 통합을 단행해야 했으면, Fuller 의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두 과정들에 공정한 통합을 해야 했으며, 특히 통합된 새 Korean Center 의 수장으로 두 과정들과 관계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Fuller 밖에서 영입하여야 하였습니 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신학대학원과 선교대학원의 학생들이 나뉘어 심각하게 갈등하게 된 것은 이미 예약된 셈입니다. Labberton 은 자신의 이러한 실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의 발표문들에서 계속 두 과정들의 갈등을 운운하며 이번의 구조조정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Fuller 신학교의 수장으로서 Fuller 안팎에 우리 KDMin 과 KSIS 를 계속 비하함으로써 우리 한인교수들과 학생들을 모독하고, 두 과정들의 학생 모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심지어 우리 재학생들 중 일부가 다른 학교들로의 전학을 고려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Labberton 총장은 또 그의 발표문들에서, 그리고 교수회와 한국 학생들과의 공청회에서 이번의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Fuller 의 두 현존 한국어 프로그램들이 낡아서 급변하는 현 세계와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계속 주장 합니다. 그는 한국에 두 세 차례 가서 우리 동문들을 만나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왜 KDMin 이 지금의 교과 내용과 교육 방법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도 우리 교수들과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가 매년 시행하는 우리의 졸업생들의 조사에 대한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왜 우리 KDMin 을 택하여 입학하고 공부하게 되었는가, 우리 KDMin 의 무엇을 값진 것으로 여기는가, KDMin 의 향상을 위해 무엇을 제안하는가, 등을 알아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Labberton 이 Fuller 의 총장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KDMin 이 왜 광고하지 않고도 많은 학생들을 모으며, 한국에 여러 미국학교들의 DMin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월등한 성공을 거두어왔는지, 우리의 졸업생들 (620 명)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리더들로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그는 우리 KDMin 이 한국 교회의 갱신과 발전에 얼마나 크게 공헌해 왔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KDMin 이 어떠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 진지하게 노력한 일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도 우리 KDMin 의 교육에 대해 낡고 비효과적인 것으로 독단적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Fuller 신학교의 수장이 한국에서 잠깐 만난 몇명의 동문들과 교계 인사들이 하는 몇 마디의 말을 자신의 교수진의 지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가 한국에 두어차례 가서 (그 방문을 위해서도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들과는 일체 상의하지 않음) 한국 목사들을 위해서 Fuller 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봉사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들을 피력했다는데, 그 생각들은 우리에게 아주 현명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것들로서, 도리어 자신의 한국 교회, 사회, 문화에 대한 부족한 이해만을 드러내는 것들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KDMin 의 교육에 대한 그의 언명은 기본 예의, 학자적 태도, 문화적 식견을 결여한 것으로서, 단순한 실수를 넘어, 우리 교수진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모욕적 언사이고, 우리 KDMin 을 깎아내려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KDMin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손상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언사입니다. 이

것이 Fuller 신학교의 총장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이며 리더쉽인지 심히 의심되는 바입니다.

## (B) 신학대학원의 한인 교수진과 일체 상의 없이 단행한 구조조정

Fuller 의 Labberton 총장은 이번의 한국어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난 18개월에 걸쳐, 특히 지난 9월 이후 4-5 개월에 걸쳐 한인 교수진, 동문들,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과는 반대로 Fuller 의 지도부는 그 논의의 과정에서 KDMin을 설립하고 21 년 간 섬겨온 김세윤 교수와 엄예선 교수, KDMin Committee 의 위원들로 수고해 온 이학준 교수와 이경진 교수와는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았고, 또 지난 12월 이후에는 KDMin 의 현 원장인 황진기 교수와 부원장인 조의완 교수와도 아무런 상의없이 이번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나 사회와 문화에 별 이해가 없는 Fuller 의 미국인 총장, 부총장들, 학장들이 어떤 한인들과 상의하였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지난 20 여년간 KDMin을 세워올린 한인 교수들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구조 조정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일 뿐더러, 우리 한인 교수들을 심히 모독한 처사입니다.

## 2. 내용 상의 문제들

### (A) KDMin 의 사실상 해체

이번 구조조정은 KDMin 스태프 중 한 명만 남겨 선교대학원의 나머지 스태프 10명에 덧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공정한 통합이 될 수 없으며, KDMin을 사실상 해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KDMin 은 지난 21년간 1,500 명 이상의 한국 목사들을 굳건한 성경적, 신학적 기반 위에 깊은 영성과 바른 도덕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도록 돕고, 여러 목회의 실제적 기법들을 새롭게 익히도록 하는 교육을 시행하려 애써왔습니다. 특히 맘몬 우상숭배적 복음의 왜곡, 기독교 신앙을 미신화하는 Shamanism 적 영적전쟁론, 한국 교회를 심각히 타락시키는 양적 교회성장론 등에 맞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도덕성을 양양하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교회의 근본주의를 개혁하여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세우고 교회를 갱신하여 온 Fuller 의 역사적 경험과 성숙한 신학으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Fuller 의 재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 Fuller 의 사명 완수에 있어 일익을 담당하며, 한국/미주한인 교회 내에 널리 퍼져있었던 풀러 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로잡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KDMin 을 비하하는 것은 Fuller 자체를 비하하고, 그것의 역사적 성과와 현재의 세계 교회에의 공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KDMin 을 일방적으로 해체해버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Fuller 는 한국어 프로그램들 전체를 심히 약화시킨 것입니다.

Fuller 의 지도부는 새 Korean Center 를 출범시키면서 학생들에게 그들이 속한 “현재의 과정에서 공부를 지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현재와 미래의 한국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라

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KDMin 직원 한 명만 선교대학원의 한국어 과정들의 구조 속으로 흡수시켜 만들어진 Korean Center 내에서 앞으로 KDMin 의 신학적, 영적, 목회적 강조점들이 견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KDMin 의 재학생들 (566 명) 은 자신들이 입학할 때 약속된 KDMin 의 교과과정의 이행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년도 중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KDMin 의 사실상 해체로 말미암아 재학생들을 위한 학사일정과 지도체제에 있어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작년 9월 서울 사무실의 폐쇄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재학생들이 이번 KDMin 의 Pasadena 사무실까지 해체됨으로써 사실상 방기됨을 느끼지 않을까 크게 걱정됩니다.

#### B) 너무 빈약한 Korean Center

Fuller 의 총장과 지도부는 지난 11월까지의 그것의 원장 (Executive Director) 으로 Fuller 를 한국 교회에 대표할 수 있는 높은 학식과 경륜을 갖추고 명성과 신뢰를 쌓은 인물을 국제적 청빙 과정을 통해 임명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우리는 그런 분의 리더쉽 하에 Fuller 의 한인 교수들의 자원들이 모두 결집된다면 Korean Center 가 지금 신학적 미숙과 내부 부패로 말미암아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성장시키는 역사적 과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Center 는 많은 한국 학생들을 끌어들이며 한국 교회에 Fuller 만 할 수 있는 공헌을 할수 있을 것이고, Fuller 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실망 스럽게도 Fuller 지도부는 한국 학생 1,000 명 이상이 소속될 Korean Center 를 출범시키며 불과 몇 달 전에 선교학부의 조교수로 취임한 안건상 교수를 수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우리 KDMin 과 KSIS 에서 각각 3명씩, 도합 6 명의 직원들을 해직시켜 심히 약화된 스태프에다가, 이제 갓 임명된 조교수를 수장으로 하는 아주 빈약한 Korean Center 를 만들며, 그것이 “한인 학생들과 한국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안건상 교수는 앞으로 좋은 학자, 지도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2014 년에 Fuller 선교대학원에서 Ph.D. 를 받고 2015 년 7 월에 조교수로 임명되어 아직 Fuller에서의 교수경력도 1년도 되지 않은 분으로서 한국에 Fuller를 대표하고 Fuller에 한국을 대표하는 Korean Center의 원장을 맡는 것은 Korean Center의 큰 잠재력의 실현을 위해서나, 그 분 자신의 차분한 성장을 위해서나 상당히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간 “총장이 한국 학생들과 한국 교회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기에 이런 부실한 Center 를 설립하여 그것으로 그들을 더 잘 섬기는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말들이 현재 학교 안팎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데, 이러한 절차와 내용 상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출범한 Korean Center 가 과연 한국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것이 될까, 그리고 Fuller 에는 제대로 공헌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KDMin 을 섬겨온 우리는 현재 무엇보다 재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우리 KDMin 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Korean Center 의 새 직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혀 예기치 못한 해고 또는 보직 해임 통지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 황진기 원장, 이성은 목사, 서 티파니 자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여 주신 KDMin Program 의 신학과 정신과 목적이 Fuller 내에서 지속 발전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KDMin 에서 함께 추구한 신학과 정신을 계속 구현하시며 한국/한인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올려 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빌면서,

김 세운 드림

Fuller 신학대학원 KDMin Program 설립자 및 KDMin Program 담당 전임 부학장  
현 Fuller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To: Alumni and Students of Korean DMin Program of School of Theology, Fuller Seminary

Feb. 25, 2016

## **Practical Dissolution of the Korean DMin Program** **and Launching of the New SIS-Centered Korean Center**

On Feb. 4, 2016,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abruptly carried out the restructuring of its Korean-language programs. With the news spreading abroad through local Korean press and internet media, many students, alumni, and Korean Christian friends are already inquiring of us about it and our stance on it. So I would like to explain them as below. In fact, in order to prevent you from misunderstanding or falling into confusion, we at KDMin wanted to send this letter to you earlier, but we thought that we needed to inform the Fuller leadership about our intent beforehand. Furthermore, for last couple of weeks, while we were delaying, Fuller's President and other leaders made efforts to meet with Korean students and faculty and listen to their concerns and suggestions. So I further delayed sending this letter, hoping that there might come some good news about the Fuller leadership's reconsideration of the restructuring. However, during last two days, we have received only the disappointing news that they were not ready to resolve som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restructuring but were announcing only some supplementary measures – this still couched in the language that has repeatedly hurt us, the Korean faculty and students. Some of you may already have seen the announcements of Fuller's President and other leaders. Hence I have decided to send this letter to you without further delay, including in it my response to their unacceptable claims as well.

Fuller Theological Seminary (FTS) has announced its plan to merge the Korean DMin Program (KDMin) of School of Theology (SOT) with the Korean Studies Programs (KSIS) of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SIS) to form the Korean Center as of March 25, 2016. The newly created Korean Center is to be headed by Dr. Keon-Sang An, who was appointed as Assistant Professor of Bible and Mission in SIS in July 2015 and subsequently also as Academic Director of SIS Korean Studies Programs in August 2015. This restructuring practically means the dissolution of the KDMin Program, as from its four-member staff Dr. Jin Ki Hwang (Associate Dean) is relieved of his position as of March 18, 2016, and John Lee (Program Coordinator) and Tiffany Suh (Operations Coordinator) are laid off as of the same date. The remaining member, Dr. Euiwan Cho, alone has been invited to join the Korean Center and continue his work as DMin Academic Mentor.

As Dr. Jin Ki Hwang, the Associate Dean for the KDMin Program, is being laid off, I, as its founder and former director, have the onerous task of delivering this sad news to you.

This restructuring is fraught with several problems both with its procedure and in its content.

## **1. The Problems with the Procedure**

### **A) KDMin Made to Bear the Brunt of the Restructuring**

In the past years also, suffering from financial troubles, Fuller Seminary carried out restructuring, laying off mostly low-ranking employees. But it appears that this year's restructuring has hit our KDMin the most seriously. From its beginning in June 1995, our KDMin has never run into deficit, but on the contrary, it has made significant financial contributions to SOT every year. We understand that the Korean Programs of SIS have done the same to SIS. Several academic programs at the Pasadena campus are known for having financially struggled or even recorded losses over the years, but apparently they have not been affected by the restructuring this year. However, the profitable two Korean programs of SOT and SIS have been merged for the reason that for last two or three years the size of their profit margins has shrunk. This is an act of serious discrimination against us Koreans.

The Fuller leadership says that conflicts between the KDMin of SOT and the Korean Programs of SIS (KSIS) were another reason for their decision to merge them into a new Korean Center. But originally those conflicts mainly reflected the conflicts that the two Schools of Fuller, SOT and SIS, had had for several decades until recently over the SIS's teachings of quantitative church growth and Shamanistic spiritual warfare. But the Fuller leadership that irresponsibly had just left that issue unresolved for a long time at last decided to ban teaching of Shamanistic spiritual warfare from Fuller seven or eight years ago. That helped reduce the tension between KDMin and KSIS greatly. Yet,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dministration, conflicts between the two Programs were not completely removed. Even so, our KDMin faculty members regularly went over to KSIS to teach its Biblical and theological courses, the Korean students of the two Programs enjoyed good fellowship as well as the diversity of the two Programs by taking courses from each other, and the staff of the two Programs cooperated with each other for various practical matters. However, since some three years ago Fuller's leadership unilaterally decided to merge the two Programs and set up Korean Oversight Council (KOC) in order to carry out the merger, the representatives of the two Programs began to argue with one another with different visions for the merger. At that time, Prof. Juan Martinez, a stranger to Korean language, culture, society and church, appointed to chair the KOC meetings, was not helpful in reducing the conflicts.

President Labberton justifies the present restructuring by claiming that he had received requests for the merger of the two Korean DMin Programs from our students and alumni as well as some Korean church leaders. But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our KDMin students have ever made that sort of request of him. At most some alumni and church leaders may have done it. But it is a question whether they adequately understood the above mentioned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DMin and KSIS and recent changes in it. Anyway, having been swayed by a few words of such people, Labberton forcefully carried out the merger and thereby has unleashed much more serious conflicts. In fact, since the unwise merger in the form of practically dismantling KDMin and having it absorbed into the KSIS-based Korean Center was announced on Feb. 4, many SOT (not just KDMin) Korean students have been strongly protesting about it, and the conflicts between them and the KSIS students who apparently are supportive of the announced merger are getting very serious. Thus ironically the Fuller leadership's merging of the two Programs in the hope of overcoming the conflicts between them has aggravated the conflicts. If for the financial reasons the Fuller leadership had to carry out the merger, it should have foreseen these problems and made efforts to do it in a way fair to both Korean Programs, and especially it should have appointed a neutral person, unrelated to either of the two Programs, brought in from outside of Fuller. It did not carry out the merger that way. Therefore, it has already programmed for the students of the two Programs to be divided and to conflict with each other. Apparently Labberton does not understand this mistake of his and his colleagues. So he continues to justify their restructuring by repeatedly referring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n Programs. He apparently does not understand, either, that thereby he is degrading our KDMin and KSIS inside and outside Fuller, insulting the Korean faculty and students, and putting a great stumbling block to the recruitment efforts of the two Programs, and even causing some of our students to consider transfer to other schools.

In his efforts to justify the restructuring, in his public announcements, at the recent faculty meeting, and in his meetings with Korean students, President Labberton also constantly repeats his claim that the current curricula and educational methods of the two existing Korean Programs are outdated and so no longer suitable for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s of today's world and Korean churches. He says that he obtained that understanding after meeting our alumni and Korean church leaders in Korea for a couple of times. But he had never discussed with us the KDMin faculty as to why we had our particular curriculum and method of education. I doubt that he had ever studied the reports of our annual exit surveys to learn why our students, Korean pastors, chose to study at KDMin or what of KDMin they appreciated and what they recommended for its improvement. I do not believe that Labberton as the President of Fuller had ever tried to understand why our KDMin had been able to draw so many students to itself even without active advertisement, why it had been incomparably more successful, even though there are many American seminaries' DMin programs operating in Korea, and how many of our graduates (total 620) had risen to the prominent leadership positions of Korean churches. I do not think that he had ever tried to see what great contributions our KDMin had made to the renewal and development of Korean churches, and what sort of reputation it enjoys among Korean Christians. Even so, he dared arbitrarily to condemn our KDMin as outmoded and ineffective. The President of Fuller has valued some fleeting comments uttered by some Korean alumni and church leaders during his brief meetings with them more highly than the wisdom of his own seasoned faculty. Some of the ideas that Labberton is said to have suggested during his Korea trips (which were also arranged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the SOT Korean faculty) for

Fuller's future services for Korean pastors sounded to us very unwise and unrealistic, betraying only his lack of understanding of Korean churches, society and culture. Thus, lacking a basic courtesy, scholarly attitude and cultural understanding, Labberton's repeated public statement about the content of our KDMin's education is not just mistaken, but unacceptably insulting to us, the Korean faculty of KDMin. It is a statement that, by degrading our KDMin Program, seriously hurts the pride of our alumni and students about it and lowers their morale. Does that represent a right attitude and leadership that the President of Fuller Seminary should take?

#### (B) Exclusion of SOT's Korean Faculty from Consultation for the Restructuring

President Labberton claims that the restructuring of the Korean Programs was the result of consultations that the Fuller leadership had undertaken with Fuller's Korean faculty and alumni, as well as leaders of the Korean church over the last 18 months, especially over the last four or five months since September last year. However, contrary to his claim, we the Korean faculty of SOT, I (Seyoon Kim) and Yea Sun Kim who had established the KDMin Program and served it for 21 years, and Professors Hak Joon Lee and Kyong-Jin Lee, the members of the KDMin Committee, had never been consulted. Since last December, even Prof. Jin Ki Hwang and Dr. Euiwan Cho, the Director and the Associate Director of the KDMin Program respectively, were excluded from the consultation. We do not know exactly with which Koreans Fuller's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eans who knew little of the Korean church, society and culture had consulted for this restructuring. But to carry out the restructuring without serious consultations with us, the Korean SOT faculty, who had built up the KDMin Program for 21 years was clearly a very unwise procedure. It was a procedure that has seriously insulted us, the Korean faculty.

## **2. The Problems in the Content**

#### (A) Practical Dissolution of the KDMin Program

The restructuring has resulted in the practical dissolution of the KDMin Program, as it saves only one of its staff and adds him to the 10-member staff of SIS Korean Studies Programs.

Over the last 21 years, the KDMin Program has educated more than 1,500 Korean pastors, making efforts to provide them with solid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s, to promote right spirituality and morality, to help them build up healthy families, and to help them develop other practical pastoral skills. We have worked especially hard to equip them with right theology, right faith and right morality over against the Mammonistic distortion of the gospel, the Shamanistic spiritual warfare teachings that have misled countless Korean Christians to turn their Christian faith into a superstition, and the quantitative church growth teaching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resent corruption and decline of the Korean church. Thus our KDMin Program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ward reforming and renewing the Korean church through Fuller's sound theology as well as her wisdom accumulated from her experiences of reforming American Fundamentalism and establishing a mature Evangelical theology. At the same time, besides

making significant financial contributions to Fuller, the KDMin Program has also carried out its part in fulfilling Fuller's mission of serving Christ's church worldwide, as well as correcting the negative image of Fuller that has been widespread in Korea and in the diaspora Korean communities. Therefore, to degrade the education of KDMin is to degrade Fuller itself, its historic achievements and its continuing contributions to the global churches. But now with the dismantling of the KDMin Program, in our view, the proposed restructuring is seriously weakening Fuller's whole Korean service.

Launching the new Korean Center, the Fuller leadership has promised that "all current Programs [including KDMin] will continue being offered under the new Korean Center." However, within the new Center that is formed with just one KDMin staff member absorbed into the structure of the SIS Korean Studies Program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theological, spiritual and ministerial emphases of the KDMin Program to be maintained. Immediately it appears difficult for the current KDMin students (566) to be guaranteed to get the curriculum that was promised to them at the point of their admission. As the practical dissolution of the KDMin Program has abruptly been carried out in the middle of this academic year, we are very much concerned that there might be a great confusion about the academic administration for them, including the dissertation advising process. We are worried especially about our students in Seoul, who might feel stranded as the closure of the Pasadena office of the KDMin Program closely follows upon the heels of the closure of its Seoul office last September that has already given them much difficulty.

#### (B) The Very Weak Korean Center

Last fall, the Fuller leadership announced that for the Executive Director of its new Korean Center Fuller would make an international search for a person of real stature with scholarship and experience who could command respect and support from Korean churches and adequately represent Fuller to her. That announcement led us to believe that if the resources of the Korean faculty at Fuller were properly mobilized under the leadership of such an Executive Director, the new Korean Center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historic task of renewing the Korean church that is rapidly declining with its theological immaturity and internal corruption. Such a Center would draw many Korean students to Fuller and be able to make the unique contributions to the Korean church that only Fuller can make, and thus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Fuller herself as well.

However, to our disappointment, the Fuller leadership announced that they would launch the Korean Center with Dr. Keon-Sang An as Executive Director, who had been appointed an assistant professor at SIS only a few months ago. They are launching an extremely weak Korean Center with a novice as its leader and with a decimated staff to take care of more than 1,000 students in it, and yet they boldly proclaim that they are doing this "in order to serve Korean students and Korean churches better." We believe that Prof. An has some good potentialities to grow as a scholar and leader. However, as one who graduated from SIS of Fuller with a Ph.D. degree in 2014 and has been an assistant professor at Fuller for less than a year, it appears quite premature for him now to take up the important and demanding position of Executive Director, who needs to represent Fuller to the Korean church and the Korean church to Fuller. We are concerned that this unwise appointment would not only prevent realization of all the great potentialities that a properly established Korean Center at Fuller would have, but also hamper his

own personal growth. Already many Koreans both inside and outside Fuller are complaining: “What a low view does Fuller’s President have of Korean students and churches so as to launch so weak a center and claim that with it he seeks to serve them better?”

In conclusion, we are very much concerned about whether the Korean Center that has been launched with such problems both with its procedure and in its content can really serve Korean churches “better” and make real contributions to Fuller. But as those who have served the KDMin Program, we are especially worried about whether the new staff of Korean Center who have been acquainted neither with our KDMin students nor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KDMin Program can really help them adequately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finish them successfully.

Please pray for Prof. Jin Ki Hwang, the Rev. John Lee, and sister Tiffany Suh who are abruptly being laid off. Pray also for the theology, spirit and aims of your beloved the KDMin Program to continue developing within Fuller. On our part, we would pray for you to go on realizing the aims that we have pursued together at the KDMin Program, to renew the Korean church and build her up healthy and strong.

May the grace and peace of the Lord Jesus Christ fill your home and church!

Seyoon Kim

Founder of the KDMin Program and former Associate Dean for the KDMin Program

Professor of New Testament,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